<PRNewswire> 아스타나 경제포럼 2016의 권고안 요약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2016년 6월 29일 PRNewswire=연합뉴스)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다. 아스타나 경제포럼에는 세계 경제 공동체 대표, 현 국가 원수와 전 국가 원수, 노벨상 수상자, 저명한 학자 및 사업가 등이 참석한다. 아스타나 경제포럼은 세계 경제 변화와 관련해서, 중앙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가 당면한 경제 개발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대화 플랫폼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872751-recommendations-astana-economic-forum/

올해 아스타나 경제포럼 2016은 "새로운 경제 현실: 다각화, 혁신 및 지식 경제"라는 주제 하에 5월 25~26일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진행됐다. 전통적으로 포럼 안건은 가장 화제가 되는 경제 개발 사안들을 포함한다.

AEF 2016의 결과는 최종 권고안에 반영된다. 최종 권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단기적 정책 행동은 성장 둔화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위험에는 주요 신생 경제 및 개발도상국 경제의 둔화세, 더욱 엄격해진 국제 융자 조건 하에서 금융 부문의 혼란 및 지속적으로 낮은 물가 등이 있다. 주기적인 둔화세가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충분한 정책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주기적인 재정 및 통화 자극을 도입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장기적인 구조적 조치로 주기적인 정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공급 제약을 완화하고,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개발도상국에서 인구통계적 역풍을 상쇄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석유 다각화를 위해서는 사업 환경 개선, 민간 부문을 발전시킬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공공-민간 부문의 임금격차 감소 포함), 시장 수요에 더욱 맞춘 교육과 기술 등이 필요하다. 민간 부문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 정부를 장려하고, 정부 중심 활동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도록 각 기업을 장려해야 한다. 생산적인 활동으로 자원 이용을 유도하는데 있어 금융 발전과 포함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노동 시장으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도모할 경우 사회적 압력을 완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다각화와 비석유 부문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노동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 심화가 특히 필수적이다. 석유 수출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은 무역 파트너들에게 중요하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고, 무역 파트너들은 증가하는 무역과 송금으로부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권고안 전문은 http://forum-astana.org/en/page/rekomendacii-aef-201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60629/384775)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uk/7872751-recommendations-astana-economic-forum/

출처: 아스타나 경제포럼(Astana Economic Forum)